‘동인지 『現代詩』’의 변모 양상과 대표성에 관한 고찰*

이형우**

1. 서론
2. 판권으로 보는 『現代詩』
3. 작품 활동으로 보는 ‘동인지 『現代詩』’
4. 기술(記述) 양상으로 보는 『現代詩』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동인지 『現代詩』의 변모 양상과 동인들의 작품 활동에 관한 연구다. 이를 바탕으로 동인지 『現代詩』에 대한 왜곡된 기술을 바로 잡고자 한다. 해방직후의 ‘『現代詩』’는 ① 한국시인협회 기관지 『現代詩』, ②전봉건 중심의 『現代詩』, ③ 동인지 『現代詩』가 존재한다. 이들은 선후 관계로 이어져 있다. 먼저 서지상에 나타나는 이들 잡지들이 어떻게 다른가부터 살핀다. 그 다음, 발간된 ‘동인지 『現代詩』’ 6집부터 26집에 실린 동인들의 작품 활동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現代詩』 관련 기록을 살펴 그 타당성 여부를 묻는다. 편의상 ①을 ‘기관지 『現代詩』’ ②를 ‘과도기 『現代詩』’ ③을 ‘동인지 『現代詩』’로 명명한다. 일반적으로 ①과 ② ③은 별개로 생각한다. ③의 모태를 ②로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같다. 그런데 ③을 ①과 연관짓는 경우도 있다. ‘동인지 『現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였음. (NRF-2012S1A5B5A07036264)

** 한양대학교 강의교수

代詩』의 뿌리가 '한국시인협회 기관지 『現代詩』'에 있다는 주장이다.

동인은 '같은 뜻'으로 '같은 시공을 함께'한 사람들이다. 뜻이 다르면 동인이 될 수 없다. 뜻이 같아도 함께 하지 않으면 동인이 아니다. 동인 연구는 동인지 연구와 다르다. 동인 연구는 같이 활동한 사람들을 한정해서 다뤄야 한다. 그러나 동인지 연구는 동인지의 역사에 관한 연구다. 동인지에 발표한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리 보면 지금까지의 '『現代詩』 동인 연구'는 '『現代詩』 동인지 연구'에 가깝다. 같은 시기에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을 동인이라 비교하고, 활동 무대가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도 따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사전(辭典) 항목도 부정확한 기술 일색이다. '『現代詩』 동인'들이 우리 시사에 남긴 업적은 크다. 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상부터 바로 알아야 한다.

주제어: 현대시, 모더니즘, 동인, 동인지, 60년대 동인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동인지 『現代詩』' 바로보기다. 이를 위해 1957년 10월부터 1972년 3월까지 나온 『現代詩』를 대상으로 변별성을 찾는다. 그 다음 '동인지 『現代詩』'의 변모 양상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동인지 『現代詩』'에 대한 기존 인식, 연구 결과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해방이후 70년대까지 『現代詩』라는 이름으로 존재한 잡지는 3종이다. 유치환이 이끈 『現代詩』, 전봉건이 주도한 『現代詩』, 동인 중심의 『現代詩』다. 일반적으로 『現代詩』하면 1964년 11월부터 1972년 3월까지 활동한 동인 중심의 『現代詩』를 떠 올린다. 하지만 간혹 세 잡지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 혼동하지 않는다 해도 8년 넘는 세월의 곡절을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동인지는 '① 사상, 취미, 경향 따위가 같은 사람들끼리 ② 모여 편집·발행하는 잡지'다. ①은 동류(同類)를 ②는 동행(同行)을 의미한다. 그래서 동인지는 이 두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런 활동을 한 사람을 일컬어 동인이라 한다. ①로 보면 『現代詩』는 ⓐ 한국시인협회 '기관지 『現代詩』',

ⓑ전봉건 중심 '과도기『現代詩』', ⓒ'동인지『現代詩』'로 나눌 수 있다. ⓐ는 한국시인협회를 ⓑ는 전봉건과의 교류를 ⓒ는 모더니즘을 동류(同類)로 한다. 연관성으로 보자면 ⓐ는 ⓑ와 ⓒ와 무관하다. ⓑ와 ⓒ는 연장선상에 있다. ⓒ는 ⓑ의 두루모임을 헤쳐모임으로 전문화 했다.

②로 보면 동인은 '모여'서 '편집·발행'하는 사람이다. 그렇다 해도 ①을 충족하지 못하면 동인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기관지『現代詩』'(ⓐ)와 '과도기『現代詩』'[1](ⓑ)는 동인지라 부르기 어렵다. 또 '동인지『現代詩』'(ⓒ)라 해도 일률적으로 동인이라 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사람[2], 처음부터 참석했다가 중간에 나간 사람[3], 중간에 들어와 끝까지 간 사람[4], 한 번 참석하고 나간 사람[5] 말기에 들어온 사람[6] 등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이들은『現代詩』라는 동인지의 동인과 선후배로 겹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한다.

우리 근현대시의 동인과 동인지는 일제 치하의 산물이다. 근대의 표본인 '제도'도 그렇게 우리에게 왔다. 일제의 지배 정책에 편승한 "각종 동인지 및 문예지를 중심으로 문단(文壇)"[7]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여기에 사람들을 가려 올려야 하는 '등단 제도'가 생겼다. 그 양상이 추천제와 신춘문예다. 이는 통과 의례이자 권위[8]였다. 이러한 제도권 문학 장치는 일차적으로 문인 증대와 문단 규모 확대[9]를 이루었다. 하지만 문단에서

---

1) 정진규는 전봉건을 중심으로 나왔던『現代詩』의 성격을 '半同人誌·半詩誌的'이라 한다. 동인지『現代詩』는 이를 극복하고 '정확한 위치에 정립해 보려는 작업'이었다고 한다. 정진규,「후기-동인지로서의 現代詩」,『現代詩』6집, 1964, 262쪽.

2) 이수익, 이승훈, 이유경은 6집부터 26집까지 참여했고, 주문돈은 6집부터 25집까지 참여했다. 김규태[7집-26집], 박의상[7집-26집], 이해녕[7집-26집]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3) 김영태[6집-15집], 정진규[6집-12집], 황운헌[6집-8집]

4) 김종해[12집-26집], 마종하[16집-26집], 오탁번[17집-25집].

5) 허만하, 민웅식은 6집만 참여했다.

6) 오세영, 이건청[25-26집].

7) 이재복은 '문단(文壇)'이란 용어가 1908년《少年》의 '少年 文壇'에 처음 등장한다고 밝혔다. 이재복,「신춘문예의 문학 제도사 연구」,『한국언어문화』제29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383쪽.

8) 박현호,「동인지에서 신춘문예로-등단제도의 권력적 변환」,『대동문화연구』제53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9쪽.

9) 이봉범,「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한국문학연구』제36집, 한국문학연구소,

살아 남기 위해서는 그만한 안전 장치가 있어야 하고 그럴 모임이 있어야 했다. 그것이 동인지(同人誌)고 동인(同人)이다. 그래서 우리 시단의 동인은 출신이나 친분 관계에 얽매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점들 때문에 동인지가 "문학사의 동적 체계와 변화를 살피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10]으로도 "어떤 뚜렷한 지향점이 나타나지 않"고, "신인이나 지방 시인 또는 미등단 시인이 그들의 습작기에 발표기회의 도구"[11]로도 평가된다.

어쨌든 동인지가 "문학권력→문단주도권→문학담론의 주류화라는 회로망 구축"[12]에 앞장섰고, 동인은 그들이 원했든 아니든 결국 그런 정치적 행보의 전위대가 되고 말았다. 이런 역사 속에서 "사적인 발표장으로 기능했거나 오로지 문단 입성의 기반으로서만 존재했던 동인지들은 결국 사라"졌다. 하지만 "『現代詩』는 이런 이중적 성격을 가장 성공적으로 끌고 나간 예외적인 동인지"[13]였다. 『현대시』는 "동인이었지만 문예잡지 못지 않은 역할을 당시의 시단에 했다."[14]

2. 판권으로 보는 『現代詩』

'현대'라는 말은 '과거'와 단절을 더 부각한다. 『現代詩』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다. 『現代詩』는 '過去詩'와 다르다는 말이다. 어떻게 다른가? 그 변별 기준은 전통 서정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다. 그런 집단은 다른 글쓰기 방식을 통해 차별성을 강화한다. 그것은 서구적 안목 이식과 서구적 수사학 대폭 수용이다. 『現代詩』라는 이름에는 이런 문학적 욕망들이 집약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現代詩』의 기의는 새로움 추구였다. 그

2009. 374쪽.

10) 손진은, 「한국 시 동인지의 성격과 전망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논문집』 제11집, 경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631쪽.

11) 문흥술, 「해방 후 50년 시 동인지의 역사」, 『시와시학』, 1995 여름, 176쪽.

12) 이봉범, 앞의 글, 419쪽.

13) 박슬기, 「1960년대 동인지의 성격과 〈현대시〉 동인의 이념」, 『한국시학연구』 제18집, 한국시학회, 2007, 221쪽.

14) 정효구, 「한국 1960년대 동인지 『현대시』 연구」, 『開新語文硏究』, 제16집, 개신어문학회, 1999, 319쪽.

이름[現代]이 지금도 지속되는 이유다. 그러나 새로움은 한 순간에 오질 않는다. 새로운 것 같지만 '過去'와 혼재하고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상과 현실, 구호와 실제의 간극은 시간이 대안이다. 오랜 시공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전통 정서와 분리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것이 각각 '기관지 『現代詩』', '과도기 『現代詩』', '동인지 『現代詩』'다.

'동인지 『現代詩』'는 6집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1집이나 창간호라 하지 않은 점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는 '동인지 『現代詩』'가 이전 '과도기 『現代詩』'의 모더니즘 성향을 연결 고리로 하여 '박남수-전봉건'으로 이어지는 후배 사단에 의해 출범했다[15]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자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시인협회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동인 중에서는 오세영과 이건청이 그렇게 주장한다.[16]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을 살피기 위해 '『現代詩』'라는 이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

15) 이승훈은 『현대시』 6집을 박남수-전봉건 사단에 의해 출범했다고 말한다. "『현대시』 6집은 한국 시협보다 전봉건 등의 시지 『현대시』를 계승했다. 6집이라 한 것도 그렇고, 선배에 해당하는 황운헌이 가교 역할을 한 것도 그렇고, 내가 박남수 추천으로 동인에 참여한 것도 그렇고, 나만 빼고 김영태, 주문돈, 이유경, 정진규, 이수익 등은 모두 박남수가 당선시키거나 그의 추천을 받은 신인들이다. 그러니까 박목월 제자인 이승훈이 동인이 된 게 지금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회고한다. (이승훈, 「나만의 비망록: 벼랑끝에서 손을 놓아라」, 『유심』 51집, 2011.) 여기에 대해 이건청은 동인들의 계보를 더 상술하고 있다. "현대시 동인들의 정신적 지주는 박남수였다. 우선 현대시 동인의 초기 멤버들 중 허만하, 김규태, 황운헌, 김영태, 이유경 등이 박남수가 문학부분의 편집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상계'와 '문학예술'을 통해 등단한 시인들이었고, 주문돈, 정진규, 이수익, 박의상, 이해녕 등은 박남수가 심사위원을 맡았던 신춘문예 출신들이었다. 그리고 이승훈은 박남수가 시간 강사로 출강하던 한양대 강의실이 인연이 되었다. 김종해, 마종하와 오탁번, 오세영과 이건청 등은 박남수를 정신적 스승으로 한 동인들의 권유로, 한 배를 타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건청, 「시의 미학 위에 시를 세우던 눈시리던 시간들」, 『대산문화』, 2008 가을, 158쪽.

16) 오세영과 이건청은 『現代詩』 동인지가 나온지 만 7년 뒤에 들어왔다. 또 그들은 모두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오세영은 (동인지) 『現代詩』가 "한국시인협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동인 아닌 동인지를 발간[1962년]하여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오세영, 「나의 비망록: 어떤 흐리고도 갠날」, 『유심』 50집, 2011)고 하며 이건청은 "한국시인협회의 중심멤버들이 참여해 동인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기초를 다진 다음 당시의 신예시인들 중심의 동인들에게 넘겨준 셈"이라 한다. 이건청, 앞의 글, 160쪽.

2.1 기관지『現代詩』

'기관지『現代詩』' 창간호는 '主幹 柳致環, 발행일 4290[1957]년 10월 1일, 定價 300圓, 正音社'[그림1]의 정보가 실려있다. 창간호의 차례[「現代詩壇」]에는 '유치환, 김현승, 양명문, 최재형, 이상노, 이태래, 이정호, 조병화, 송욱, 신동집, 정한모, 김요섭, 한성기, 이종학, 황금찬 등의 이름이 있다. 아울러 「詩와 映畵」라는 전봉건의 산문, 「꽃과 詩」라는 김춘수의 산문도 실려 있다. 2집[그림2]은 1집과 표지 다자인이 다르고, 영어제호[POETRY KOREA]가 표기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韓國詩人協會機關誌'라고 명기되어 있다. 2집에서는 「現代詩壇」이 「作品」이라는 항목으로 바뀌었다. 신동집, 김춘수, 신석정, 김윤성, 설창수, 김관식. 이경순, 김상옥, 고은 등이 시를 발표했다. 천상병의 「現代東洋詩人의 運命」이란 제목도 보인다.

〈그림 1〉 '기관지『現代詩』' 창간호 판권

〈그림 2〉 기관지『現代詩』창간호, 2집, 2집 목차(왼쪽부터)

2.2. 과도기『現代詩』

〈그림 3〉 과도기『現代詩』판권, 표지, 차례(왼쪽부터)

전봉건이 중심이 된 '과도기 『現代詩』'는 '編輯委員: 柳致環·趙芝薰·朴南秀, 發行日: 1962년 6월 25일, 값 20원, 著者代表: 全鳳健, 文宣閣 發行'[그림3]의 정보가 담겨 있다. 김광림, 김요섭, 김종삼, 신동집, 박태진, 임진수, 전봉건, 이중 등이 참여한다. 필진도 모더니즘 성향을 지닌 시인들로 대거 바뀌었다. '기관지『現代詩』'에 비해 여러 면에서 동인지로 진일보한 모습을 띠고 있다. 실무 주체는 전봉건이고 대표 명칭을 '主幹'대신 '著者代表'라 하여 동인지 체제임을 표방하고 있다. 영문표기도 'POETRY KOREA'에서 'KOREAN MODERN POETRY'로 바꾸었다. 'MODERN'이라는 구체적 수식어를 넣었다는 사실은 책을 내는 기본 성격이 달라졌음을 알려준다. 통시적 관점에서 공시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 담론으로, 종합에서 분화의 관점을 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연도 표기도 단기에서 서기로, '定價'라는 말 대신 '값'이라는 우리말을 썼다.[17] 액면가로만 보면 값이 무척 싸졌다. 화폐 개혁이라는 여백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5집을 발행한 1963년 12월 1일까지 같다. 편집 위원이 늘어난 것만 빼고.

2.3. 동인지『現代詩』

'동인지『現代詩』'는 전봉건이 중심이 된 '과도기『現代詩』' 5집을 잇고 있다. 하지만 그 전(前)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그림4] '동인지『現

17) 5집에는 다시 '定價'라는 말을 썼다.

現 代 詩 □ 30 원 □
1964年 11月 15日 印刷
1964年 11月 20日 發行
□ 著者代表 □ 黃 雲 軒
□ 發 行 人 □ 金 駿 基
□ 印刷兼發行 □ 實 昌 齋
□ 登錄 □ 1961. 4. 25. 第919號
서 울 龍山區 元曉路 1街 117
電話 ④ 0555 · 2220 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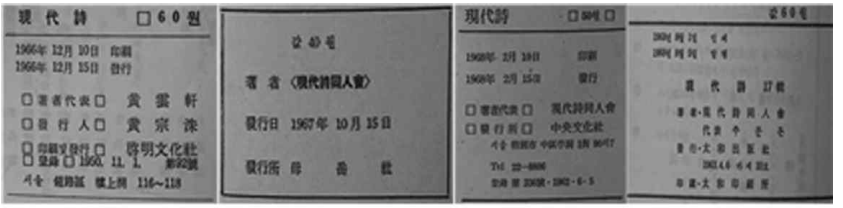
〈그림 4〉 동인지 『現代詩』 6집 판권

代詩』'를 결성한 주역인 黃雲軒이 3년간 대표를 맡았다. '과도기 『現代詩』'의 '著者代表'라는 호칭은 같이 썼지만 나중에 '著者代表→編輯→編輯委員'으로 바뀐다. 대표도 '황운헌→현대시동인회[그림6, 14집 판권]→주문돈[그림6, 17집 판권]→현대시동인회[그림7, 20집 판권]→이유경 · 김종해[그림8, 23집 판권]→김종해[그림8, 25집 판권]→이해녕 · 박의상 · 이승훈[그림8, 26집 판권]'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대외적으로 '동인지 『現代詩』'의 대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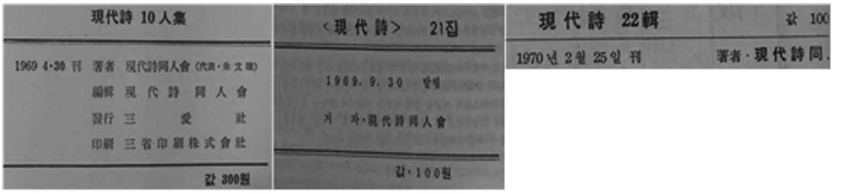
'동인지 『現代詩』'는 1964년 11월 20일 6집을 발간하여 1972년 3월 10일 종간했다. 64년에 1권, 65년에 2권, 66년에 3권, 67년에 3권, 68년에 5권, 69년에 2권, 70년에 3권, 71년에 1권, 72년에 1권을 발행했다. 총 21권을 냈다. 첫해와 끝 두 해를 빼고는 매년 두 권 이상을 냈다. 부정기 간행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발간 실적이 동인들의 열정과 비례한다고 보면 '동인지 『現代詩』'의 전성기는 1966년부터 1968년이다. 특히 5권을 낸 1968년이 정점이다. '동인지 『現代詩』'의 활동에 관한 연구는 이 시기에 집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64년에 한 권을 발간한 일은 11월이어서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71년과 72년에도 그리 된 것은 '동인지 『現代詩』'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말해준다.

판권에는 '동인지 『現代詩』'의 발행처가 자주 바뀌어 있다. 이는 경제적 문제도 유추하게 하고, 인쇄 기법의 변화양상[본문조판부터 옵셋 인쇄까지]을 찾아 볼 수 있게 한다. 값은 30원[그림4]에서 시작하여 200원[그림8, 26집 판권]까지 올라 있다. 만 8년 4개월 동안의 물가 변동도 읽을 수가 있다. 20집 같은 특별판은 임시 특가 300원[그림7, 11집 판권]을 매겼고, 14집은 40원[그림6]으로 인하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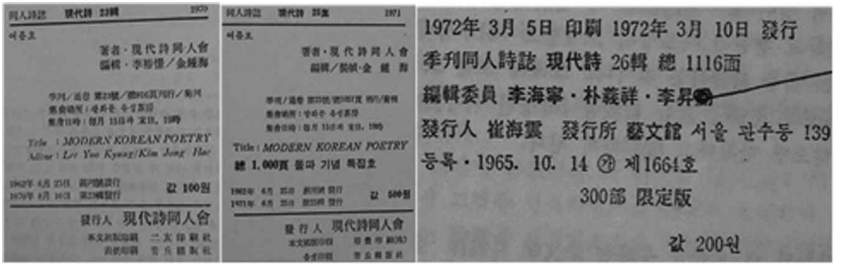
〈그림 5〉 『現代詩』 7-10집 판권



〈그림 6〉 『現代詩』 11, 14, 15, 17집 판권



〈그림 7〉 『現代詩』 20, 21, 22집 판권



〈그림 8〉 『現代詩』 23, 25, 26집 판권

3. 작품 활동으로 보는 '동인지『現代詩』'

'동인지『現代詩』' 6집부터 26집의 필자들 중, 실질적인 동인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김규태, 김영태, 김종해, 마종하, 박의상, 오세영, 오탁번, 이건청, 이수익, 이승훈, 이유경, 이해녕, 정진규, 주문돈, 황운헌' 등 15명이다.[18] 이들은 비동인의 글을 '기고'로 명명하여 차별화 했다. 그렇지만 참여한 시인끼리도 활동 시기에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동인(同人)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15명의 작품 면면은 아래[표1]와 같다.

표 1 작가별 발표 작품 목록

	작품명(장르)(호) *소:소시집 e; 엣세이 평: 평론
김규태	철제장난감 외4(소)(8), 가방 속에 잠자는 외1(9), 유월에 흩어진 기억들(10), 포옹(11), 간사지(13), 시작 노트(e)(13), 아침 기상은(14), 6년만의 새(15), 꽃감기 들다(16), 내 종기 앓는 자리에(17), 의자(19), 강설기 외3(20), 엘느여 안녕(24), 동해안의 바람소리 외1(25), 패총 이야기 외1(26)
김영태	유태인이 사는 마을의 겨울(6), 유태인이 사는 마을의 겨울(7), 월광 Ⅰ·Ⅱ(8), 목관악기(9), 방(10), 실수(11), 개(12), Note(e)(12), 일기 외1(13), 여름감기(14), 낚시터에서(15),
김종해	한 겨울 밤 신화 외1(12), 환(13), 시업수련(14),나의 시(e),(14), 겨울집 · 비극(16), 방랑하는 사람Ⅱ(17), 고목에 관해서(18), 언어의 식민지에서의 해방(e)(18), 가을 보행(19), 악령 외4(20), 하느님께 우편으로(21), 우울한 소실(22), 속 서울의 정신(24), 자살 외3(25), 망우리의 안개 외2(26)
마종하	동행 외3(16), 한여름날 외1(17), 동경 외1(18), 가을 인상(19), 그대의 첼로 외4(20), 노래하는 바다(장)(21), 별(22), 마른 살(23), 꿈꾸는 분수(24), 운행 외4(25), 신극 외3(26)
박의상	전후 3, 4, 5, 6, 7(장시)(7), 금주에 온 비(8), 햄릿의 등장 외1(9), 전화 외1(10), Hook wink 외 1(11), 밤마다(12), 바람이 불 때(13), 겁(14), 죽은 공자의 시대(15), 쓰기(e)(15), 일일S씨(16), 불(17), 읽기(e)(17),시와 제목(17), 어머니의 달(18), 시와 자유(e)(18), C의 죽음과 벽과 고요(19), 갈등 외4(20), 풍덩이(21), 성년(22), 밤비의 비애 외4(24), 안질에 대하여 외4(25), 대심문(장)(26)

18) 여기에 민웅식, 허만하까지 포함하면 모두 17명이다.

오세영	불면 외4(25), 열병 외2(26)
오탁번	꽃 정신 외4(17), 일추기 외1(18), 겨울 연가(19), 굴뚝청소부 외4(20), 비 외4(20), 심청(22), 아이들에게 외1(23), 단조 외2(25),
이건청	신봉사전1 외7(25), 황인종의 개 외2(26)
이수익	목소리Ⅷ(6), 열쇠(7), 김과 은(8), 우울한 샹송(9), 심상 외3(소)(10), 암실에서(11), 초인종(13), 새들의 비가(14), 눈이 내릴 때(15), 꽃(16), 이 세상에서(17), 목소리10(18), 의식의 하류에서(19), 목소리11 외3(20), 종소리(21), 거울 앞에서(22), 어떤 방문(23), 노래여(24), 여백 외1(25), 주점에서 외1(26)
이승훈	겨울 日沒 외 1(6), 야외 외1(7), 초원 소묘(8), 내면(9), 허상 외1(10), 현대새의 내면성(e)(10), 사물A(11), 사물B(12), 의미의 연상구조(e)(12), 위독Ⅰ-Ⅳ(연)(13), 위독Ⅴ-Ⅷ(연), (14), 현실과 아이러니(평)(14), 착란 외1(15), 수술(16), 시어의 해석방법론(e)(16), 방법 외1(17), 저 푸른 나선의(18), 현대시의 Idea문제(e)(19), 도둑 외4(20), 신율리시즈 외3(21), 무엇이 문제인가(e)(22), 춘천4(22), 봄밤 외2(23), 감옥 외2(24), 유고1 외4(25), 어느 영접공의 철야 외1(26)
이유경	뿔끌로델(e)(6), 밀알들의 영가(7), 바다(8), 쥴리엩의 엽서(Ⅴ)(9), 익사한 어부 그대에게(10), 쥴리의 엽서 외1(11), 빛(12), 어둠 속의 산책(13), 교외 생활(15), 정착의 좌표(e)(15), 침몰선(16), 죽음의식Ⅰ(17), 언어의 광맥을 찾는 노동(평), 단 한번 해 본 기도(18), 겨울 소풍(19), 간밤의 소식 외4(20), 밤의 소요(21), 상징주의 어록(역)(21), 역사의식의 의식(e)(22), 죽은 도시(23), 새벽의 추락 외3(24), 망집의 뜰 외2(25), 새 소시민적 방황(e)(26)
이해녕	해동철에 외1(7), 설립 외4(소)(8,), 각성 외1(9),손님(11),귀로(12), 그 겨울은(13), 가을 습속(14), 예감(15), 정물(17), 주변(18), 옛날에는(19), 일기 외4(20), 정지(21), 함차 속에서 외2(22), 시와 현실의 문제(e)(23), 일기3(24), 햄릿 연가1 외4(25), 햄릿연가 외2(26)
정진규	내 반지의 여자 외1(6), 피신(8), 겨울 양식1 · 2 · 3(9), 적 외1(10), 정액(12)
주문돈	그날 바다는(6), 나의 자유(7), 노동(8), 원가 외1(9), 괴물주변(10), 새벽(11), 토기1(12), 토기Ⅲ(13), 토기Ⅳ(14), 토기Ⅴ(15), 광부(16), 둘 혹은 하나(18), 일상(19), 항아리 외4(20), 폭풍1 · 2(21), 겨울 소식(22), 거요(23), 말에 대하여(24), 적수 외3(25),
황운헌	사자의 꿈을(6), 어느 외로운 화상(7), 초록빛 동화처럼 살고 싶었다(8)

표 2 동인 작품 발표 현황

호 / 연 / 월 / 동인이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64	65			66			67			68				69		70			71	72
	11	05	10	03	07	12	04	06	10	02	06	08	10	12	04	09	02	08	겨울	06	03
김규태			소5	p2	p	p		p/e	p	p	p	p		p	p4				p	p2	p2
김영태	p	p	p	p	p	p	p/e	p2	p	p											
김종해							p2	p	p/e		p	p	p/e	p	p5	p	p		p	p4	p3
마종하											p4	p2	p2	p	p5	장	p	p	p	p5	p4
박의상		장	p	p2	p2	p2	p	p	p	p/e	p	p/e2	p/e	p	p5	p	p		p5	p5	장
오세영																				p5	p3
오탁번												p5	p2	p	p5	p5	p	p2		p3	
이건청																				p8	p3
이수익	p	p	p	p	소4	p		p	p	p	p	p	p	p	p4	p	p	p	p	p2	p2
이승훈	p2	p2	p	p	p2/e	p	p/e	연	연/e	p2	p/e	p2	p	e	p5	p4	p/e	p3	p3	p5	p2
이유경	e	장	p	p	p	p2	p	p		p/e	p	p/c	p	p	p5	p/역	e	p	p4	p3	e
이해녕		p2	소5	p2		p	p	p	p	p		p	p	p	p5	p	p4	e	p	p5	p3
정진규	p2		p	p	p2		p														
주문돈	p	p	p	p2	p	p	p	p	p	p	p		p	p	p5	p	p	p	p	p4	
황운헌	p	p	p																		

*p: 시, 장: 장시, e: 엣세이, c: 평론, 소: 소시집, 연: 연작시 역: 번역 *공란: 불참/가입전/탈퇴

위의 표를 참고하면 가장 열심히 동인 활동을 한 사람은 이수익, 이승훈, 이유경이다. 이 대열에 김규태, 박의상, 이해녕, 주문돈도 들어 간다. 김영태와 정진규는 전반기에 활약한 동인이다. 김종해는 중후반, 마종하, 오탁번은 후반기의 중심 멤버들이다. 황운헌은 초기 3회, 오세영과 이건청은 말기 2회 동안 활동했다.

[표2]는 성실하게 동인 활동에 임한 정도를 알게 해 준다. 이승훈은 한 호도 거르지 않고 작품을 발표했다.[19] 뒤를 이어 이수익, 이유경, 박의

19) 정효구는 "이승훈이 동인이 끝난 지금까지도 『현대시』 발간 당시의 시적 특징을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는, 가장 『현대시』 동인다운 시인이다"고 말한다. 정효구, 앞의 글, 317쪽.

상, 이해녕, 주문돈이 따른다. 김영태는 동인에 적을 둔 동안, 마종하는 가입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김규태, 김종해, 오탁번도 꾸준히 활동을 했다. 더 눈여겨 봐야 할 사실은 『現代詩』 동인의 산파역을 했던 황운헌과 정진규의 조기 퇴진[20]이다. 역학 관계 변화는 동인지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재창간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김종해, 마종하, 오탁번의 참여도 『現代詩』 동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맥점이다. 이들의 작품 활동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 3 연도별 작품 발표 현황

년도 / 이름	64	65	66	67	68	69	70	71	72
김규태		5	4	2/e	4	4		2	2
김영태	1	2	3	4/e	1				
김종해				4/e	4/e	6	2	4	3
마종하					9	5/장	3	5	4
박의상		1/장	6	3	5/e5	6	6	5	장
오세영								5	3
오탁번					8	10	3	3	
이건청								8	3
이수익	1	2	6	2	5	5	3	2	2
이승훈	2	3	4/e	1/연2/e/c	5/e2	9	7/e	5	2
이유경	e	1/장	4	2	5/e/c	6/역	5/e	3	e
이해녕		7	3	3	4	6	4/e	5	3
정진규	2	1	3	1					
주문돈	1	2	4	3	4	6	3	4	
황운헌	1	2							

20) 정진규의 탈퇴는 내·외적 곡절이 있다. 내적 사유는 이승훈의 글에서 찾아야 한다. "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거나 동인들 사이에 알력이 생길 수도 있고, 주도권 다툼이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승훈, 『한국 모더니즘 시사』, 문예출판사, 2000, 235쪽. 외적인 이유는 최라영의 글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정진규는 1969년 '시의 애매함에 대하여'와 '시의 정직함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운문형식을 탈피 산문 형식을 그의 고유한 시 쓰기로 삼았다. 그와 동시에 내용적 측면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방향과 모색기를 갖는다. 이 시기 그는 교직 생활을 청산하면서 '진로'에 입사, 홍보 관계의 일을 하게 된다." 최라영, 『현대시 동인의 시세계』, 예록, 2006, 232쪽.

{표3}은 {표2}를 간략화 했다. 이를 참고로 하면 동인 활동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이수익은 시만 28수 발표했고, 이승훈은 시 39수, 연작시 2[8수], 엣세이 5편, 평론 1편을, 이유경은 시 26수, 장시 1수, 엣세이 4편, 평론 1편, 번역 1편을 싣고 있다. 박의상도 시 32수, 장시 2수, 엣세이 5편을 실었다다. 이해녕은 시 35수와 엣세이 1편을, 주문돈은 시 27수를 발표했다. 후발 주자인 김종해는 시 23 수와 엣세이 2편을 발표했고, 마종하는 시만[장시 포함} 30수 발표했다. 김규태도 시 23수, 엣세이 1편을 발표했다. 아울러 위의 {표1} – {표3}을 종합하면 아래[표4]와 같다.

표 4 동인 참여 빈도 및 발표 작품 누계표

	참여회수	발표 작품 누계					
		시	연작시	장시	엣세이	평론	번역
이승훈	21	39	2(4+4)		2	1	
이유경	20	26		1	4	1	1
이수익	20	28					
박의상	19	32		2	5		
주문돈	19	27					
이해녕	18	36			1		
김규태	14	23			1		
김종해	13	23			2		
마종하	11	26		1			
김영태	10	11			1		
오탁번	8	24					
정진규	5	7					
황운헌	3	3					
이건청	2	11					
오세영	2	8					

지금까지 제시한 {표1}부터 {표4}는『現代詩』동인 연구 범위를 알려준다. 들쭉날쭉한 행보는 모든 동인지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그렇다 해도

동인 연구는 문제가 없다. [표2]에 보이는 것처럼 발표 시기가 같은 경우를 택하면 되기 때문이다.

4. 기술(記述) 양상으로 보는『現代詩』

오세영은 "우리 문학사의 왜곡된 기술은 문학 용어 혹은 문학 이론의 몰이해에서도 비롯된다."[21]고 했다. '동인지『現代詩』'에 대한 왜곡 역시 '동인'이라는 '용어 몰이해'에서 생긴 오류다. 이건청은 동인의 개념으로 "① 동일한 구성원 ② '공동의 발표지면' ③ 실험의식"[22]을 든다. 동일한 구성원이란 동류의식으로 뭉친 집단을 말하며 공동의 발표지면이란 같이 발행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그런 시공을, 현실을 함께 하는 사람이 동인이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지속된『현대시』동인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현대시』동인에는 많은 시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가령 이들이 모더니즘을 지향했다거나 내면의 자아를 천착해 들어갔다는 식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23] 당연히 "『現代詩』동인 연구를 통해서 동인지『現代詩』의 특성를 살펴보기는 결코 쉽지 않다"[24]

『現代詩』와 관련된 연구가 혼선을 빚는 큰 이유는 출신 동인들의 모호한 진술과 연구자들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다. 먼저 이승훈은『現代詩』동인으로 '김규태, 김영태, 김종해, 마종하, 박의상, 오세영, 오탁번, 이건청, 이수익, 이승훈, 이유경, 이해녕, 정진규, 주문돈, 허만하, 황운헌'[25] 등 16명을 든다. 또『現代詩』동인들은『現代詩』6집 시절을 회상하며 "선배

---

21) 오세영,「「현대시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20세기 한국시의 사적 조명』, 태학사, 2003, 20쪽.
22) 이건청,「韓國同人誌詩史硏究」,『동아시아 문화연구』, 한국학연구소, 1982, 201-203쪽.
23) 송기한,「민주화의 열망과 좌절」,『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339-340쪽.
24) 류순태,「전후 모더니즘 시에 나타난 환상 연구」,『한중인문학연구』제23집, 중한인문과학연구회, 2008, 43쪽.
25) 이승훈은『한국모더니즘시사』에『現代詩』동인의 면면에 관해 자세하게 적고 있다. 이 책 235쪽에는 민웅식을 동인으로 들고 있으나, 236쪽부터 237쪽에 이르는 동인 소개에는 민웅식의 이름이 빠져있다.

인 황운헌, 허만하, 신인 김영태, 주문돈, 이수익, 정진규, 이승훈, 이유경" 등이 출범 멤버였음을 밝힌다. 뒤이어 "박의상, 김종해, 오탁번, 마종하, 오세영, 이건청, 이해녕, 김규태 등이 동인에 참여하면서 『현대시』는 60년대 한국시의 새로운 목소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26]고 말한다. 당연히 이런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 후속 연구는 이어진다. 이처럼 '동인지 『現代詩』' 관련 왜곡된 정보는 일차적으로 동인들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역사는 통사가 기본이다. 그래서 이승훈이 든 동인 16명은 동인지에 나오는 이름이기에 타당하다. 또, 동인들이 다시 모여 낸 목소리도 통시적인 진단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거하는 명단과 진술이 세부적 사실과 어긋날 수가 있다. 출신 동인들의 후일담처럼 "60년대 한국시의 새로운 목소리를 드러내기 시작했"을 당시, 오세영과 이건청은 『現代詩』 동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25집[71년 6월]부터 참여했기 때문이다. 개략적 진술에 사실이 묻힌 셈이다. 이는 동인들 끼리 매정하게 가를 수 없는 정리(情理)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지점을 연구자들이 놓치고 있다. 그 결과 선후배는 없고 동인[동창생]만 존재한다. 또, 대표성 거명에 정효구[27], 문혜원[28], 박슬기[29] 등은 신중한 편이지만 대부분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권영민의 규정이 그렇고[30] 최라영[31], 이새봄[32], 김윤정[33], 김

---

26) 이승훈 외, 「'현대시'를 다시 내면서」, 『현대시 94』, 현대시학사, 1994, 3쪽.

27) 정효구는 자신이 직접 거명하지 않는다. 구속력 있는 동인으로 '정진규, 이승훈, 오탁번, 이건청, 마종하, 이수익, 박의상, 이유경, 김종해, 김규태, 허만하, 이해녕, 주문돈, 오세영'이었다는 『現代詩』 동인들의 말을 인용한다. 정효구, 앞의 글, 286쪽, 각주 3 참조.

28) 문혜원, 「<현대시> 동인의 시론 연구」, 『비교한국학』 제18집, 국제비교한국학회, 2010.

29) 박슬기, 앞의 글, 207쪽.

30) 권영민은 1960년대 등장한 시인들 중에서 주지적 태도와 서정적 감성을 조화시키며 노력해온 사람들의 대표로 "동인지《현대시》를 중심으로 모였던 주문돈, 허만하, 이유경, 이수익, 박의상, 마종하, 이건청, 오세영, 김종해 등"을 들고 있다.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02, 216쪽.

31) 최라영은 주요 동인을 "허만하, 김규태, 김영태, 이유경, 주문돈, 정진규, 이수익, 김종해, 박의상, 이승훈, 마종하, 오탁번, 이건청, 오세영, 이해녕"(등단순)을 든다. 최라영, 「<현대시> 동인의 유형 연구」, 『한국현대문학학회』, 한국현대문학회, 2006, 144쪽.

은영[34]도 비슷하다. 다음으로 『두산 백과사전』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現代詩」' 항목은 어떤지를 찾아 본다.

1961년 6월 창간되어 1969년 4월까지 20집을 발간하였다. 편집위원은 유치환(柳致環) · 박남수(朴南秀) · 조지훈(趙芝薰)이었으며, 창간 동인으로는 김광림(金光林) · 김요섭(金耀燮) · 김종삼(金宗三) · 신동집(申瞳集) · 박태진(朴泰鎭) · 임진수(任眞樹) · 전봉건(全鳳健) · 이중(李中) 등이 참여하였다. 1957년에 발행되었던 유치환 주간의 《현대시》를 답습하려는 듯 한국시인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였다.

1964년 11월 6집부터는 동인들이 대부분 젊은 시인들로 교체되어 허만하(許萬夏) · 민웅식(閔雄植) · 주문돈(朱文墩) · 이유경(李裕暻) · 김영태(金榮泰) 등이 활동하였는데, 이들은 1970년대에 들어와 주목받는 시인들로 성장하였다.

1969년 4월 30일에는 동인지 사상 최장수인 20집을 발간하고, 시에 대한 자신들의 기본 태도를 밝혔는데, 현실에서 받은 내면의 딜레마를 시로써 극복하려는 데 역점을 둔다고 하였다.[35]

1961년 6월에 창간되어 1969년 4월 제20집을 발간하였다. 1957년 유치환(柳致環) 주간의 <현대시 現代詩>를 답습하려는 듯 한국시인협회 회원

32) 이새봄은 『현대시』 동인들의 출입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의 동인으로 17명 [이승훈이 주27)에서 말한 인원에다 민웅식까지 포함시킨다.]을 든다. 이새봄, 「『현대시』 동인 시의 서정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2집, 한국현대문학회, 2007, 286쪽.

33) 김윤정은 "김규태, 김영태, 오세영, 이승훈, 이건청, 오탁번 등"을 대표 동인으로 든다. 김윤정, 「아방가르드 시의 양상」, 『20세기 한국시의 사적 조명』, 태학사, 2003, 254쪽.

34) 김은영은 "박의상, 김종해, 오탁번, 마종하, 오세영, 이건청, 이해녕, 김규태 등이 동인에 참여하면서 『現代詩』는 1960년대 한국의 새로운 목소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인용으로 자신의 의견을 대신한다. 김은영, 「『현대시』 동인의 시 의식과 미적 지향성」,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7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6쪽.

35) 『두산백과사전』, 「현대시」,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82551 (2013. 7. 3. 검색.)

들을 중심으로 모였다.

편집위원은 유치환 · 박남수(朴南秀) · 조지훈(趙芝薰)이며, 창간동인으로는 김광림(金光林) · 김요섭(金耀燮) · 김종삼(金宗三) · 박태진(朴泰鎭) · 신동집(申瞳集) · 이중(李中) · 임진수(任眞樹) · 전봉건(全鳳健) 등이 있으며, 6집(1964. 11.)부터 동인들의 거의가 교체되어 민웅식(閔雄植) · 허만하(許萬夏) · 주문돈(朱文墩) · 이유경(李裕暻) · 김영태(金榮泰) 등 젊은 시인들이 활동하였으며, 이들은 1970년대에 들어와 크게 주목을 받은 시인들로 성장하였다.[36]

위의 두 백과사전의 '『現代詩』' 항목은 동일인이 썼거나 아니면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1961년 6월에 나온 『現代詩』는 없다. 책에 인쇄되어 있는 연도는 그림 3)의 표지에 인쇄된 것처럼 1962년이다. 또, "1969년 4월까지 20집을 발행했다"는 『두산 백과사전』의 진술도 틀렸다. '까지'라는 조사는 '끝으로'라는 뜻이다. 1969년 4월에 『現代詩』 20집이 나온 것은 맞다. 그러나 1972년 3월까지 26집을 발행했다. 또, '유치환 주간의 『現代詩』를 답습한다는 말은 종합지나 기관지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기관지 『現代詩』'와 '과도기 『現代詩』', '동인지 『現代詩』'를 구분하지 못하는 발언이다.

판권으로 살핀 대표들은 '황운헌, 주문돈, 이유경, 김종해, 이해녕, 박의상, 이승훈'이었다. 동인들이 대표로 내세운 이름들 중에는 주문돈, 이유경만 들어 있다. 황운헌도 '유치환-전봉건'처럼 '『現代詩』'의 대표로 만 3년을 지냈다. 정진규는 초기의 구심점이었고, 동인지의 산파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이들의 이름도 없다. 참여순으로 봐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유경은 참여 서열 공동 2위, 주문돈은 공동 4위, 김영태는 10위다. 이승훈[1위], 이수익[공동 2위], 박의상[공동 4위], 이해녕[6위], 김규태[7위], 김종해[8위], 마종하[9위]는 빠져 있다.

---

36)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현대시」,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3291 (2013. 7. 3. 검색.)

‘『現代詩』 동인’ 기술법(記述法)에는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허만하, 민웅식’을 대표로 내세우는 사전(辭典) 속의 목소리고, 다른 하나는 ‘오세영, 이건청’을 60년대로 소급 적용하는 연구자들의 글이다. 허만하는 연구자들의 논문에도 자주 등장한다. 그는 ‘과도기『現代詩』’부터 활약한 동인이다. 설령 6집 한 호로 활동을 마감했다 해도 마음으로 교유한 시간은 오래일 수 있다. 그래서 허만하와 민웅식에 대한 언급은 그런 기억을 남기려는 욕망의 무의식적 발현이다. 그런데 ‘오세영’ ‘이건청’은 이와 다르다. 연구자들의 무감각이 더 크게 작동했다. [표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세영과 이건청은 71년 6월에 합류했다. 그런데도 연구자들은 그들을 60년대 동인으로 거론한다. 거기다 출신 동인들도 “구속력 있는 동인”[37] 반열에 놓는다. 동인지의 역사는 선호도나 사후(事後)의 권력 구조에 따라 서술할 사안이 아니다. 대표성 운운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대표는 판권에 기록된 이름이나, 가장 열심히 활동한 동인들을 벗어날 수가 없다.

5. 결론

이 글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폈다. 첫째, 전후(前後)『現代詩』의 관계 설정이었고, 둘째,『現代詩』 동인들의 활약상이었고, 셋째는『現代詩』 동인지에 관한 기술(記述) 현황이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관이 있는『現代詩』를 망라하여 조사했다.

유치환이 주도했던 ‘기관지『現代詩』’가 종합적이었다면, 전봉건 중심의 ‘과도기『現代詩』’는 같은 취향끼리 모았다. ‘동인지『現代詩』’는 그것을 더 선명하고 극한으로 밀고 갔다. 이런 흐름은『現代詩』라는 이름의 책들이 ‘맹목적인 시 사랑’에서 ‘목적적인 시 색깔’로 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7) 정효구, 앞의 글, 286쪽, 각주 3 참조.

『現代詩』 동인의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인지를 내는 중추 역할은 황운헌과 정진규가 했다. 이수익, 이승훈, 이유경, 주문돈, 박의상, 이해녕 등이 중심을 잡아 나갔다. 여기에 김규태의 꾸준한 참여, 전반기의 김영태, 후반기의 김종해, 마종하, 오탁번 등이 가세하여 『現代詩』를 명불허전(名不虛傳)으로 만들었다. 이들의 대표는 판권에 명기된 이름이거나, 가장 열심히 활동한 시인이어야 한다.

'동인지 『現代詩』'에 대한 연구[記述] 현황은 문제가 컸다. 연구자들은 '동인'의 개념을 무시한 경우가 많다. 같은 동인지에 몸 담았기에 편의상 동인으로 부를 수 있다. 하지만 '함께' 하지 않았으면 선후배다. 이를 무시하고 '『現代詩』 동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를 동등화 한다. 64년 11월부터 72년 3월까지 만 8년 4개월이라는 시간, 이합집산이 많았던 만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재단한다.

『두산 백과사전』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역사 왜곡과 편파적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문외한이 아니면 불가능한 기록들이다. 『現代詩』의 관계사에 초점을 맞춘 정치 담론에 가깝다. 출신 동인인 오세영과 이건청도 비슷한 온정론(溫情論)을 편다. 모더니스트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친목단체[한국시인협회]의 정신을 잇고, 선배들이 마련해 준 마당을 터전으로 삼았다는 논리다.

뿌리에 대한 동인의 상반된 견해는 '동인지 『現代詩』'의 정체성(正體性)을 의심하게 한다. 애당초 우리 근·현대문학사의 동인은 대동사회를 지향하는 전통적인 동인의 개념과는 무관하다. 폐쇄 집단에 가깝기에 더 '한 마음'과 '같은 기억'을 지닐 수밖에 없다. 공자는 『周易』의 「同人卦」[「天火同人」]를 설명하면서 "(동인 두 사람의) 같은 마음은 그 날카로움이 쇠도 끊고, (두 사람이) 합심한 말은 그 향기가 난초같"[38]다고 했다. 하지만 동상이몽(同床異夢)의 결과는 불통이고 분열이고 해체다. 이질적인 목소리는 그것의 촉매제다.

---

38)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 『繫辭傳 上』.

『現代詩』 해체 이후, 동인들은 우리 시단에서 그 공적을 크게 인정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문학 외적인 삶도 성공한 그룹이다.[39] 그러다 보니 시단에서 신화가 된 면이 없지 않고, 출신끼리도 여운이 남아 있다.[40] 그러나 그 진면목은 '동인지 『現代詩』'에 인쇄된 시공에서 살필 일이다.

39) 이건청은 "「현대시 동인」 구성원들의 상호 유대감은 남다른 데가 있었던 것 같다. 동인 구성원들이 긴밀한 유대로 묶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멤버들이 정선되었다는 데서 오는 상호 균형, 혹은 일종의 호승심같은 것도 있지 않아 싶다. 허만하, 김규태, 이유경, 주문돈, 정진규, 박의상, 김종해, 마종하 등은 각자 전문분야에서 우뚝한 자기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이다. 또한 오세영, 오탁번, 이건청, 이승훈 등은 대학의 시학 교수가 되었다. 동인 모두가 시적 성취에서는 물론 살아가는 일에서도 나름대로의 성취를 이룬 셈이다."라고 회고한다. 이건청, 앞의 글, 161쪽.

40) 이승훈은 "1994년 『현대시 94』 라는 사화집을 내면서 다시 모이고 95년부터는 '현대시 동인회'라는 이름으로 '현대시 동인상'을 제정"했다고 한다.(이승훈, 앞의 글, 237쪽) 여기에 대해 문혜원은 분명한 매듭을 짓는다. 1994에 재결성된 <현대시 동인회>가 '동인으로서의 성격보다는 독립적인 시인들의 모임같은 성격이 강하므로 60년대 동인지로서의 『現代詩』의 활동은 26집으로 완결'되었다고 한다. 문혜원, 앞의 글, 150쪽.

| 참고문헌 |

『現代詩』 1 · 2집.(한국시인협회 기관지)

『現代詩』 1-26집.(1962-1972)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02.

김윤정, 『20세기 한국시의 사적 조명』, 태학사, 2003.

김은영, 「『현대시』 동인의 시 의식과 미적 지향성」,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7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류순태, 「전후 모더니즘 시에 나타난 환상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23집, 중한인문과학연구회, 2008.

문혜원, 「<현대시> 동인의 시론 연구」, 『비교한국학』 제18집, 국제비교한국학회, 2010.

문흥술, 「해방 후 50년 시 동인지의 역사」, 『시와시학』, 1995 여름호.

박슬기, 「1960년대 동인지의 성격과 〈현대시〉 동인의 이념」, 『한국시학연구』 제18집, 한국시학회, 2007.

박헌호, 「동인지에서 신춘문예로-등단제도의 권력적 변환」, 『대동문화연구』 53집, 대동문화연구원, 2006.

손진은, 「한국 시 동인지의 성격과 전망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논문집』 제11집, 경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오세영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_____, 『20세기 한국시의 사적 조명』, 태학사, 2007.

_____, 「나의 비망록: 어떤 흐리고도 갠날」, 『유심』 50집, 2011.

이건청, 「韓國同人誌詩史硏究」, 『동아시아 문화연구』, 한국학연구소, 1982.

_____, 「시의 미학위에 시를 세우던 눈시리던 시간들」, 『대산문화』, 2008년 가을.

이봉범,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한국문학연구』 제36집, 한국문학연구소, 2009.

이새봄, 「『현대시』 동인 시의 서정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2집,

한국현대문학회, 2007.
이승훈, 『한국모더니즘시사』, 문예출판사, 2000.
이승훈 외, 「'현대시'를 다시 내면서」, 『현대시 94』, 현대시학사, 1994.
이승훈, 「나만의 비망록: 벼랑끝에서 손을 놓아라」, 『유심』 51집, 2011.
이재복, 「신춘문예의 문학 제도사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29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정진규, 「후기-동인지로서의 現代詩」, 『現代詩』 6집, 1964.
정효구, 「한국 1960년대 동인지 『현대시』 연구」, 『開新語文硏究』, 제16집, 개신어문학회, 1999.
최라영, 『현대시 동인의 시세계』, 예록, 2006.

〈ABSTRACT〉

Study of the History of the Coterie Magazine *Hyundaeshi* (*Contemporary Poetry)*

Hyeong Woo Lee
(Hanyang University)

This article is about the History of the coterie magazine, Contemporary Poetry. *Hyundaeshi*(*Contemporary Poetry)* is (1) *Contemporary Poetry* by the Organization of Korean Poets. (2) Geon Bong-Gun's *Contemporary Poetry*. (3) Coterie magazine *Contemporary Poetry*. These are based on periodic manner. First, I observed how these magazines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then, studied the activity of artists in the coterie magazine *Contemporary Poetry* (6) to (28). Let us distinguish (1) as organizational magazine *Contemporary Poetry,* (2) as specified magazine *Contemporary Poetry*, (3) as coterie magazine *Contemporary Poetry*. In general, it is considered (1) is different from (2) (3) and (3) was originated by (2). However, in recent years, there was an attempt to connect (1) and (3). The root of collaborative publication *Contemporary Poetry* was based on organizational magazine *Contemporary*.

A coterie means people who share unifying common interest or purpose. The study of coterie is different from the study of coterie magazine. The study of coterie has to deal only with the members who were active together. However, the study of coterie magazine is a study of history of its publication. It is, of course, not related to the active period of each member. From this point of view, I can say that the study of the coterie of *Contemporary Poetry* is a study of the coterie magazine *Contemporary Poetry*. We can't call them a coterie because they weren't active during the same timeframe. Some do not

even distinguish whether the active period was in the 60's or the 70's. When an artist joins *Contemporary Poetry*, they are treated the same. This is why such phenomenon occurs. The trace that was left by the members of *Contemporary Poetry* is a great one. In order to value it properly, we must know accordingly.

Keywords : *Contemporary Poetry*, Modernism, coterie magazine

논문접수일 : 7.15 / 심사기간 : 7.16 – 8.5 / 게재확정일 : 8.10